THE ASIAN BANKER®
STRATEGIC BUSINESS INTELLIGENCE FOR THE FINANCIAL SERVICES COMMUNITY

한국 은행 금융 리스크 심포지엄

심포지움 결과 보고서 ▪ 2012년 12월 6일, 한국, 서울

Sponsors

IBM

KAP 한국자산평가

SUNGARD®

TriOptima

+내용

참석자 2
논의 핵심 요점 2
세부 논의 사항 3
1.한국의 은행 리스크 관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리스크및 규제 이슈. 3
2.현재의 글로벌 지리 경제적 변화가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3
3. 은행 규제 강화가 미치는 영향. 4
4. 바젤 III 규제와 연관된 신용 가치 조정(CVA;Credit Valuation Adjustment). 4
5. 은행들이 주목하는 대안적 리스크 관리. 4
6. 한국의 G-SIFI(Global-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이들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 5
7.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장 선호되는 방식으로서의 포트폴리오 압축 및 조정. 5
8. 한국의 OTC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주요 변화 6
9. 바젤 III 의 적용 및 기타 다른 잠재적 이슈 6
10. 바젤 III 준비를 위한 실질적 조언 6
결론 7

참석자

본 심포지엄에는 다음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음.

1. 김성우(Brian Kim), BCBS 팀장, 금감원 은행감독부
2. 브라이언 케힐(Brian Cahill), 홍콩 HSBC 시나리오 및 스트레스테스팅 최고 책임자
3. 안병현, 하나금융지주 CRO 겸 전무
4. 양창호, 수협은행 준법 감시인
5. 안기수, 우리금융지주 최고 리스크 관리 부장
6. 박동현(Tom Park) 아시아 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거시경제및 금융 리서치)
7. 임보혁, 신한금융지주 CRO 겸 상무
8. 김종민, 국민은행 운영리스크 부문 차장
9. 장성관, 전북은행 리스크관리 책임자
10. 최용록, 인하대학교 교수
11. 이동성, 국민은행, 리스크관리 차장
12. 이수진, 국민은행, 크레딧 리스크 차장
13. 최시열 한국자산평가 컨설팅부문 팀장
14. 윤건용, 농협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 (Vice Research Fellow of Financial Research Division)
15. 조재희, 신한은행 리스크 관리 책임자
16.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정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
17. 한철우, CMPR CEO, TriOptima Asia Pacific 컨설턴트
18. 유카타 이마니시(Yukaka Imanishi), CEO, TriOptima Asia Pacific
19. 존 시아(John Chiah), TriReduce 최고 담당자, TriOptima Asia Pacific
20. 김종균, IBM GBS 컨설턴트
21. 시나 춘(Seana Chun), 수석 솔루션컨설턴트,선가드(SunGard)
22. 에마누엘 다니엘 (Emmanuel Daniel), 아시안 뱅커 사장 겸 CEO
23. 데이비드 밀러(David Millar), 국제리스크전문관리자연합회(PRMIA) COO 겸 리스크 관리 전문가

핵심 논의 요점

본 심포지엄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좌담회 등을 통해 핵심적으로 다뤄졌음:

1. 한국의 은행 관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리스크및 규제 이슈. .
2. 현재의 글로벌 지리 경제적 변화가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3. 은행 규제 강화가 미치는 영향.
4. 바젤 III 규제와 연관된 신용 가치 조정(CVA; Credit Valuation Adjustment).
5. 은행들이 주목하는 대안적 리스크 관리.

6. 한국의 G-SIFI(Global-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이들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
7. 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장 선호되는 방식으로서의 포트폴리오 압축및 조정.
8. 한국의 OTC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주요 변화
9. 바젤 III 의 적용 및 기타 다른 잠재적 이슈
10. 바젤 III 준비를 위한 실질적 조언

세부 논의 사항

본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다음의 세부 논의 사항을 다뤘음:

1. 한국의 은행관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3 대 주요 리스크와 규제 이슈

a) 세계 3 대 신용 평가기관인 무디스, S&P, 피치 그룹은 한국의 신용 등급을 상향시켰다. -이로 인해 외환이 한국시장에 급격히 유입되면서 한국금융당국의 새로운 규제로 이어져 파생상품 시장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b) 한국의 은행들이 대출에 있어 보다 소극적이 된 것은 경기 둔화에 따른 자본 확충의 필요라기보다 임박한 바젤 Basel III 자본 및 유동성 요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c) 자본 및 대출 개발은 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견디기 위해 자신들의 리스크 거버넌스에 대한 개선을 할 수밖에 없어 거래당사자 리스크에 큰 영향을 끼친다.

2. 현재의 글로벌 지리 경제적 변화가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a) 현재 글로벌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 수치는 2011 년 7.2%부터 시작한 반면 2012 년에는 6.1%로 떨어져 이같은 저성장 기조가 2013 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 한국 원(KRW)은 2012 년 6 월 30 일 이후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가장 성과가 높아 지난 6 개월 사이 미 달러와 대비 9%나 올랐다. 따라서 고가 수출품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여 인플레를 자극하고 있다. 아시아 전반에서 인플레는 2012 년과 2013 년 4.2%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 선진국 경제의 규제 강화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는 자본 흐름의 불안정성을 촉발할 수 있다. 금융시장에 자금경색으로 돈을 빌리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면서 모든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성장과 확대의 기회를 여전히 갖추고 있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d) 중국, 한국, 몽고를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부실채권(NPL)은 경계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높은 NPL 율은 제조 둔화 및 중국 및 한국의 주택가격으로 촉발된 측면이 크다.

e) 유럽 경제 문제에 대한 노출도가 가장 큰 국가로서, 한국의 기존 산업 부문은 유럽 경제위기로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현 유럽 위기가 더욱 심화될수록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

f) 그러나 아시아의 서비스 부문 발전은 다른 비즈니스 영역으로의 긍정적 확산효과, 보다 큰 포괄성, 해외 거래에 대한 기회를 비롯한 새로운 기회들을 가져다 줄 것이다.

3. 은행 규제 강화가 미치는 영향.

a) 다수의 규제들로 은행들은 자신들의 규제 준수 및 리스크 관리 부서를 완전히 새로 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재구축은 고비용 및 수고가 따른다.

b) 은행들은 다양한 데이터를 놓고 자주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규제당국들은 은행들이 더욱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 한국의 리스크 관리자들은 세계 경제가 2008-20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재편을 거듭함에 따라 자신들의 영역에서의 선진사례를 배워 건강한 투자회수(ROI)를 유지하고 최적의 리스크 레벨을 확보하는데 관심이 많다.

4. 바젤 III 규제에서의 신용 가치 조정 (CVA;Credit Valuation Adjustment)

CVA 는 OTC 파생상품과 연관된 지불불능 리스크 외에도 거래당사자의 신용 등급 하락에 따른 손실에 대한 리스크에 부과된 자본이다.

a) 거래당사자에 대한 CVA 리스크 자본 계산에 대한 승인을 얻는데 실패한 은행들은 포트폴리오에 부과된 자본을 계산해야만 한다.

b) CCR 손실의 3 분의 2 가량은 CVA 손실에 기인한 것이며 실제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것은 오직 3 분의 1 정도다.

c) 대부분의 은행들이 자신들이 감당해야 하는 CVA 수수료 수준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의 특정 케이스로서 CVA 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또한 IT 부서들도 리스크 관리시스템 현대화에 힘쓰고 있다.

d) 거래당사자 신용 리스크(CCR) 근래 들어 수동적 리스크 관리에서 능동적 리스크 관리로 전환되었다. CCR 에는 더욱 정확하고 잦은 빈도(매일, 하루 내내, 실시간)의 CVA 계산이 요구된다.

5. 은행들이 주목하는 대안적 리스크 관리

외부압력들이 아시아 금융부문을 강타한 오직 하나의 이슈라고는 할 수 없다. 한국의 보험회사들은 기록적이라 할 만큼 보장성 보험을 판매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 부채를 헷지할 수 있을만한 대안을 찾고 있다. 높은 자산운용성과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은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물론 현재의 경제 기상도로 볼 때 이 같은 방법은 결코 쉽지 않은 방법이다.

a) 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안 전략및 전술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i. 정책 결정 -이는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은행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항시 활동의 일환으로서의 비즈니스 정책 결정으로 이뤄진다.

ii. 가격 및 거래당사자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실행- 이러한 실행은 시장 전반에 제 2, 제 3 의 주문 물결을 만들어내 구매 측과 기업 파생상품 사용자들에게로 확산될 것이다.

iii. 현금 시장 거래 - 업계관행과 규제 가이드라인을 모두 지키면서 회사의 재무재표를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구두 거래 관리 팀이 진행한다.

iv. 파생상품 - 이러한 금융 도구는 회사의 대차대조표나 포트폴리오 상에서의 리스크 포지션을 상쇄해주는 근원적인 특징 부채로 부터 나온것이다.

6. 한국의 G-SIFI(Global-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이들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

바 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이미 G-SIFIs 의 규제 프레임 워크를 완성했다. 그러나 한국의 어떤 금융기관도 현재로선 G-SIFI 로 인정받은 기관은 없다.

a) 은행의 모회사가 자신들의 한국 자회사들이 발행한 일련의 전환사체에 대한 보유를 승인 받을 수 있는지, 추가 자본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보유해도 되는지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7. 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장 선호되는 방식으로서의 포트폴리오 압축및 조정

최적의 포트폴리오 균형을 이루게 되면 유동성, 자본,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많은 기관들이 CCP 에 대한 조정을 실행한다. 그러한 적극적인 조정으로 은행은 거래 당사자 및 CCP 에 대한 포트폴리오 정보를 정렬할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포트폴리오 압축으로 은행은 자신들의 시장 리스크 프로필과 거래당사자 노출 및 현금 포지션 등을 통제하면서도 기존 계약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a) 포트폴리오 조정및 압축은 OTC 파생상품의 거래 후 리스크경감을 위한 시장 표준이 되었다. 더욱이 이 방법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법으로 집행되고 있다.

b) 포트폴리오 압축은 양자간 관계나 중앙거래당사자(CCP) 모두에 있어서 개념적 분량을 줄여준다. 두드러진 개념적 분량을 줄이고 거래 수를 줄이는 것은 다음의 효과를 가져온다:

   i. 운영 리스크및 비용 절감.
   ii. 더 나은 CCR 관리.
   iii. 대차대조표에서 위험 가중 자산(RWA)를 없앰 .
   iv. 자본 시장 수수료 절감.

c) 다자간 포트폴리오 압축은 은행이 자신들의 OTC 파생상품 리스크와 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툴로서 오랬 동안 사용되었으며 그 중요성은 바젤 III 및 다른 새로운 규제 하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

d) 포트폴리오 조정은 거래 전 주기에 걸쳐 거래당사자 간의 불일치를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매우 중요한 리스크 관리 후 실행 테크닉이다. 지난 12 개월 동안 아시아 지역의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실행했으며 특히 호주와 일본에서 활발히 나타났다.

8. 한국의 OTC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주요 변화

a) 한국의 OCT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유동성 부족은 CCR, 운영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 및 마진 리스크에 있어서의 변화와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b) OTC 파생상품은 실행과 동시에 만기되는 현금 거래와 달리 만기일이 최대 50 일까지 길어 고비용을 수반한다. 그러한 비용에는 규제/경제 자본 수수료, CVA 수수료, 운영 비용, 펀딩 비용 및 운영 활동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이 포함된다.

9. 바젤 III 의 적용및 기타 다른 잠재적 이슈

a) 한국의 대다수 은행들은 엄격한 자본 요건, OTC 를 위한 글로벌 시장,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방법을 포함한 바젤 III 의 다양한 요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b) 한국의 은행들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요건을 맞추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규제준수에 대한 경고를 해왔다. 바젤 III 하에서 유명 외부 신용등급 기관의 신용등급이 AA- 이상인 기업의 채권만이 유효한 유동성으로 간주된다. 한국은 해외 부채에 대한 국가신용도 등급이 A 이기 때문에 많은 국내 주체를 통해 발행된 많은 해외 채권들은 바젤 III 하에서는 유동성 자산으로 평가를 받을 수 없다.

c) 미국과 유럽의 큰 문제였던 법적 실체의 재구성은 아직 한국에서는 이슈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금융 지주사 안에서의 은행의 중요성이 비은행 부분에 비해 훨씬 크고 따라서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 부문을 분리하기 위한 금융 그룹의 재구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d) 바젤 III 규정은 아시아와 달리 미국과 유럽에서는 다른 영향을 끼쳤다. ; 서구의 은행에서는 자본완충 및 레버리지 비율이 주요 이슈였던 것이다. 반면 아시아 은행들은 유동성 비율과 CCR 비용을 우려했다.

e) 주요 아시아 국가들은 바젤 III 규정에 대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조치를 취해왔다.
한국은 유동성 규정을 발효시켰으나 중앙 청산시스템은 연기되었다. 일본은행들은 중앙 청산 시스템을 개선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리스크모델을 업그레이드 하고 시장에서의 가격 정책을 개선했다. 한편, 중국은 최종 바젤 III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일부 프로세스의 구축은 연기될 것이다.

10. 바젤 III 준비를 위한 실질적 조언

a) 데이터의 품질은 데이터의 양과 같이 동일하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은행들은 새로운 데이터와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 웨어하우스(DW), 나아가, 더 많은 데이의 입상(粒狀), 타입 및 볼륨이 필요하다 (유동성 룰과 CCPs)

b) 은행 데이터를 다루는 IT 아키텍처는 복잡한 분석을 수행하고 실시간 리포팅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앞선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 시스템으로 진화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데이터 통합을 위해 다수의 소스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상호의존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다.

c) 리스크 계산의 복잡도(e.g. 새로운 레버리지 및 유동성 메트릭스와 빈도)가 크게 증가하게 됨에 따라, 그리고 더욱 실질적인 보고 요건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은행의 리스크 방법론 및 인프라는 바뀌어야만 할 것이다.

결론

a) 새로운 규제 유입, 약한 서구 시장, 효과적으로 경쟁을 전개하는 것들은 한국 은행들이 바젤 III 를 준수하기 위한 길을 찾는 열쇠다.

b) 한국경제는 2009 년 경제위기를 견뎌냈지만 여전히 LCR 요건, 국제 금융 쇼크에 대한 노출 모니터링, 유동성 시장에서 ROI 를 높게 유지하는 등의 주요 과제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다.

c) OTC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유동성 부족은 한국의 은행들에게 거래당사자 리스크, 운영리스크, 시스템 리스크및 마진 리스크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과제를 안길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핵심은 은행의 리스크 부서가 만연한 리스크를 보다 더 잘 감시할 수 있도록 새로 구축하는데 있다.

d) 한국의 은행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은행의 다양한 부서로부터 나오는 폭넓은 데이터를 읽고 분석하며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선진 기술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은행들은 보다 세련된 분석기법(MC 시뮬레이션)및 CVA, 부채 가치 조정, 펀딩 가치 조정및 OIS(overnight index swaps)와 같은 보다 빠른 계산을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